

## 청소년 자살,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 생명의전화 '함께고워크'로 희망 전한다

생명의전화가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는 함께 걸으며 청소년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너는 소중한, 너는 혼자자가 아니야" 이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생명의전화 하상준 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힘은 전문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의전화와 한화생명, KBS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는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 함께고워크'는 지난 4월 8일(화)부터 오는 27일(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총 2,500명(대면 500명, 비대면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청소년을 응원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대(10~19세)

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2018년의 4.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7.3%, 우울감 경험률 26%, 자살 충동 경험률 13.5%, 자살 시도를 5.25%, 고립감 경험률이 18.1%로 나타났다. 10명 중 1~2명이 생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은 2013년 29.3%에서 2023년 43.8%로 14.5%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독 관련 손상 비율도 19.2%에서 33.5%로 상승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자해 문제는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와 절망,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감정을 신체적

고통으로 전환해 표현하는 행위다.

상담 현장에서는 "자해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로 제공하지 못한 공감과 위로의 언어를, 자신의 상처를 통해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청소년의 마음을 먼저 들어야 한다. 어른의 시각으로 충고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경청과 공감으로 다가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는 감정과 마음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서교육과 생명존중 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정 공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래 상담, 집단 심리교육, 정기적인 마음건강 체크 등 실질적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개입 체계를 촘촘히 구성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SNS·채팅 기반의 익명 상담 창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넷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아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명의 청소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가정, 학교, 지역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생명전화, 지방자치단체, 병원, 종교·민간단체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 청소년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생명안전망이 필요하다.

### 칼럼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은 12.3 불법비상계엄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한 날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무장 군인들을 막아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3.1운동, 4.19의거, 5.18광주항쟁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동안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 운동을 해온 극우 정치집단도 함께 폐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아스팔트에 나가서 사법부까지 침탈한 범죄자를 순교자로 옹호했던 기독교 극우 운동이 철피를 맞은 날이다. 이제까지 현재의 시간이었다면 오늘날부터는 교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곧 한국교회에 대한 탄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대형교회의 적지 않은 목사들은 극우 기독교인 선동자들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정체가 2024

설교가 교회에서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극우 기독교의 아젠다인 동성애 매너사냥과 빨갱이 이념,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길들여져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설교를 검열하고 있었다. 아니 극우 기독교의 아젠다에 익숙해진 교인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목회 생명을 위해서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 인용 판결문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리였다. 이를 계기로 탄핵 반대 옹호론자까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다.

지난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가?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속아 아스팔트에서 은박지를 둘러쓰고 추운 겨울밤을 지새운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기독교 판에서 서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이를 지지하고, 배후 세력을 자처한 교회 지도자들은 역사와 성도를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좌우, 동서로 분열을 조장한 근본주의 극우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돌아서야 할 것이다. 음모론, 거짓 뉴스, 성도를 이용하여 선전 선동한 거짓 목사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말하며 상식을 버린자들, 세상보다 욕심 많고 악하고 무례한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이제 교회가 세상보다 올바른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한국교회 개신교 신도의 수를 870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이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사이

## “한국교회여! 진리의 횃불을 다시 들자”

년 10월 27일 종교개혁기념주일,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개최된 '악법 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였다. 처벌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목적으로 한 연합예배였다고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적도 잠재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들은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외면하고 값싼 은혜만을 남발해온 부류들이다. 이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후보자 시절 이래로 무속 또는 신천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1주기는 유가족과 전혀 상관없이 기획된 예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교회에 방문한 것을 환대했다. 국회의원 총선거 10일 전 부활절 예배가 개최되는 명성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지지를 호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래미와 같은 지도자로 치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주일에는 윤산 대통령 관자를 방문해서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고, 감옥에 수감됐을 때는 성경책을 넣어 주며 격려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기독교가 그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은 보수정권 친화적인 대형교회 목사들이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대다수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예언자적인

비 이단에 속한 신도들이고, 200만 명 이상이 가나안 신도들이라고 추정한다면, 한국 개신교의 실제 신도는 500만 명은 될까 모르겠다. 문제는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교회와 개신교인들에 대한 비개신교인들의 신뢰도를 보면 14%가 되지 않는다. 가톨릭 48%, 불교 51%, 원불교 18%에 비추어 볼 때, 11%인 천도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한국의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로 개종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과연 극우 기독교와 극우 기독교인들을 정리할 만한 자정능력이 있을까. 한국교회가 이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쳐 나갈 수 있을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호소한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선포한다.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 어린 회개와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연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고, 불의에 대해서는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열과 상처로 찢어진 교회와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 혼돈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 들 수 있기를 바란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광주자생한방병원·광주보훈청

## 광주고려인마을서 의료봉사 실시

광주자생한방병원(원장 염승철)과 광주지방보훈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주 고려인 마을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11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9일 고려인마을에서 진행했으며, 광주자생한방병원 한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입국 광주에 정착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 어르신 약 5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 한방진료를 제공하고, 한방 파스 등 건강식품도 함께 전달했다.



광주자생한방병원과 광주지방보훈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주 고려인 마을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십대선교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5일 오전11시 베네치아에서 열렸다.

## 2025년 광주 십대선교회(YFC) 정기총회 성료

### 제25대 이사장 남택을 목사·부이사장 정현필 장로 선임

창립 53주년을 맞은 청소년 전문 선교단체인 광주YFC 이사회(이사장 이현아, 대표 김원식)는 지난 3월 15일(토)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베네치아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24년 사업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 등 회무처리와 함께 제25대 선임위원을 선출했다.

제25대 이사장에 남택을 목사(광주유일교회), 부이사장에 정현필 장로를 선출했다. 신임이사로 김중현 집사, 최진수 장로를, 감사에 심명섭 장로(세광교회)가 추가 선임하고 다른 임원과 유임되었다.

이어 '위기에 처한 한국의 청소년과 한국교회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참석자들의 공동기도' 후 폐회했다.

## 제136회 전남노회가 광주CBS와 함께 하는 전도부흥운동 프로젝트

이번 136회 전남노회(통합)가 광주 CBS와 함께 하는 “전도부흥운동 프로젝트”에 기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전남노회장 강정원 목사



강정원 목사  
만남의교회



홍윝 목사  
부산성민교회



이만수 목사  
흥천중앙교회



이요한 목사  
괴산중부교회



오주환 목사  
익산예안교회



양정석 장로  
광양태인교회

**강사** 강정원 목사(만남의교회) - 잊음없는 교회 이야기  
홍윝 목사(부산성민교회) - 행복한전도, 즐거운 만남  
이만수 목사(흥천중앙교회) - 받는교회가 주는 교회로  
이요한 목사(괴산중부교회) - 작은교회 전도전략  
오주환 목사(익산예안교회) - 십자가속의 5도  
양정석 장로(광양태인교회) - SNS전도방법

**특전** 1. 1차~7차까지 전체 참석자에게 수료증과 기념품 드림  
2.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많이 참석한 시찰회에 특별시상함

서기 : 오창주 목사 (010-3616-6045)

61499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29(소태동) http:전남노회,aub.kr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 노회국내선교부 주관 : CBS광주방송 협력 : 한국기독교공보, 미션21, 한국복음방송 후원 : 장소허락교회 및 전남노회 소속교회